

# 소련의 대북한 전략적 인식의 변화와 점령 정책 : 1945~1948년 점령 기간을 중심으로

정성임(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정치학)

## I. 머리말

이 논문은 1945~1948년 북한 점령 기간 중 소련의 북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련의 북한 점령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북한의 ‘민주화’를 중시한 나머지 소련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을 점령할 당시 이미 소련은 ‘민주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의도를 가졌다든 것이 곧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민주화’의 예정표(time-table)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점령지 북한의 혼란된 상황 외에도 소련의 인식상 특성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때로는 한계로 작용하는 한편, 때로는 정책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왜 소련이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이 논문은 첫째,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1945년 말 소련이 '조선 문제' 북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둘째, 공위 과정에서 소련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련이 1차 공위를 통해 비로소 '조선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며, 공위 결렬은 미국의 대일 정책으로 소련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또 철군 후 북한의 '민주화'를 자신 했기 때문임을 밝힐 것이다.

## II. 소련의 북한 인식과 '모스크바 결정'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이하 '모스크바 결정')는 소련의 북한 점령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우선 '모스크바 결정'의 근간은 소련안이었다. 또한 미소공위에서 소련은 '조선 문제'의 해결 원칙을 '모스크바 결정'으로 제시하였고, 미국측의 '모스크바 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

- 
- 1) 소련측 학자들은 점령기의 시기 구분을 중앙 권력 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형성이 아니라, 모스크바 회의와 그 후 공위의 전개 과정을 기준으로 ① '해방'—모스크바 회의기, ② 공위기, ③ 정권수립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F. I. Shabshina, "Koreya posle vtoroi mirovoi voiny(2차대전 후 조선)", E. M. Zhukov ed., *Krizis Kolonial'oy Sistemy*(식민 체제의 위기)(Moskva : Tokhookeanskiy Institut, Akademiya Nauk SSSR, 1949), pp. 243~289 ; G. E. Samosonov, *Bor'ba Sovetskogo Soyuza za Demokraticheskoe Reshenie Koreiskogo Voprosa/1945~1948gg*(조선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소련의 투쟁/1945~1948)(Avtoreferat dissertatsii na soiskanie ychenoy stepeni kandidata istoricheskikh nauk, Bysshaya Diplomaticeskaya Shikola MID SSSR)(Moskva, 1954).
  - 2) Doklad ob itogakh raboty Upravleniya Sovetskoy Grazhdanskoy Administratsii v Severnoi Koree za tri goda(avgust 1945~noyab' 1948), Tom 1(이하 Doklad(a))(Phkenv'yan, 1948),

한 점에서 ‘모스크바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미소공위에서 소련이 ‘조선 문제’ 혹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 소련군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선 문제’와 북한 정세에 대해 소련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소련은 분할을 정치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뿐더러 ‘조선 문제’를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해결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 1. ‘조선 문제’에 대한 소련의 인식

1945년 당시 소련의 인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조선을 ‘제국주의의 식민 체계’ 중의 일부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련군 보고서나 문헌을 보면 조선의 행정, 경제 체제에 대한 식민성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sup>3)</sup> 예를 들어, 샤브시나(F. I. Shabshina)는 조선을 “2차 대전의 결과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첫번째 식민지”로 제시하고 조선의 ‘해방’이 “전후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위기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한 바 있다.<sup>4)</sup>

---

pp. 19~20 ; E. M. Zhukov, *Sovietskiy Soyuz v Bor'be za Demokraticeskoe Reshenie Poslevoennykh Problem Dal'nego Vostoaka*(소련과 극동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투쟁)(Moskva, 1950), p. 17 ; F. I. Shabshina, “Koreya posle”, p. 249 ; G. Tavrov, “Koreyskiy vopros posle vtoroy mirovoy vony(2차대전 후 조선 문제)”, *Sovetskoe Gosudarstvo Pravo*, no. 8(Iyun' 1950), p. 7 ; G. Vasetskiy, “Narodno-demokraticheskiy stroy v Severnoy Koree(북조선의 인민민주주의 건설)”, p. 1 ; P. Kraynov(a), *Bor'ba za edinyyu demokraticeskuyu koreyu*(민주 통일 조선을 위한 투쟁)(Moskva : Izdatel'stvo Pravda, 1948), p. 3.

3) Doklad(a), p. 319, Doklad(b), pp. 2~5 ; E. Pigulevskaya, “Koreyskiy narod v bor'be za nezavisimost'i demokratiyu(독립·민주 투쟁에서 조선 인민)”, *Vopros' Ekonomiki*, no. 6 (Iyun' 1950), pp. 1~2 ; L. Zenina, “Bor'ba koreyskogo naroda za demokraticheskoe edinstvo i natsional'nyu nezavisimost'(조선 인민의 민주 통일 및 독립 투쟁)”, *Propaganda i Agitatsiya*, no. 13(Iyun' 1950), p. 1 ; P. Kraynov(b), *Bor'ba koreyskogo naroda za nezavisimost'(조선 인민의 독립 투쟁)(Moskva : OGIZ, 1948)*, pp. 19~27.

그러나 소련이 ‘조선 문제’를 독자적인 ‘식민지 해방’ 문제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민정부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섬멸된 이후, 조선 문제의 해결 방침은 총체적인 전후 정비 계획 속에 포함되었는데 …”<sup>5)</sup>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전후 정비 계획’이란 전시 서방 국가들과 함께 논의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을 말한다. 이는 소련군 정치요원 그로차르의 「인민정부수립요강」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미래 조선 정부로 4개국 보장하의 ‘노동자·농민 정권’을 제시하였는데,<sup>6)</sup> 그 4개국은 점령 당사국 외에 영국, 중국 등 전시 회담의 구성원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모스크바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소련은 미국을 ‘조선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4개국의 관여를 허용하였다. 즉, 당시 소련은 ‘조선 문제’를 전시 연합국간 회담의 연장선상 혹은 국제 협력 속에서 해결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소련은 왜 ‘조선 문제’를 독자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또 조선의 ‘해방’이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타브로프(G. Tavrov)의 설명은 이러한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다. 조선에 소련군과 미국이 함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조선 문제’가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협력하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련 외교 정책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1944년 가을 아래 소련은 전시처럼 서방과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모색중이었다.<sup>8)</sup> 스탈린의 지

4) F. I. Shabshina, “Koreya posle”, p. 249.

5) Doklad(a), p. 18.

6) 민주주의민족전선, 『해방조선 I :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서울 : 과학과사상, 1988), 118~119쪽.

7) G. Tavrov, “Koreyskiy vopros”, p. 30.

8) Vojtech Mastny, “The Cassandra in the Foreign Commissariat : Maxim Litvinov and the

적처럼, 전쟁 전 소련의 “전체 공업의 3분의 2가 미국의 기술 원조로”<sup>9)</sup> 가능하였고, 이제 전후 경제 복구에는 서구의 원조가 보다 필요하였다. 1944년 11월 서구와의 동맹 관계는 ‘장기적 이해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스탈린의 언급이나,<sup>10)</sup> 1945년 10월 13일 북한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소련측 인사가 미국, 영국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연합국과의 친선 도모’ 등을 강조<sup>11)</sup>한 것은 모두 소련이 서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중에 소련이 ‘조선 문제’를 국제 협력의 틀 밖에서 독자적으로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소련이 왜 신탁안을 용인했는가는 바로 이와 같이 당시 소련이 ‘조선 문제’를 국제 협력의 틀 내에서 파악했다는 점으로부터 설명된다. 절반의 북한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영국, 중국 등의 참여자 증가는 소련에게 불확실성을 의미할 수 있었다. 실제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은 12월 20일 자국안을 제출할 때까지 신탁안의 수용 자체에 머뭇거렸다. 미국안 제출 후 소련은 4개 안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sup>12)</sup> 마지막 안에 ‘후견’ 기간을 명시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12월 20일 모스크바 회의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때 첫 3개 안의 공통점은 임정의 신속한 수립, 국내 ‘민주’ 단체의 참여 외에 신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최종안 제출을 이틀

Cold War”, *Foreign Affairs*, vol. 54, no. 2(Jan. 1976), pp. 366~376.

- 9) Eugene Lyons, *Workers' Paradise Lost*, 하준락·김영수 역, 『소련의 신화와 현실』(서울 : 형설출판사, 1972), 148, 159~160쪽.
- 10) Vojtech Mastny, *Russia's Road to the Cold War : Diplomacy, Warfare and the Politics of Communism, 1941~1945*(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 233.
- 11)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 Bery Publishers, 1989), p. 99, 115.
- 12)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문서, Fond 0430, Opic' 2, Papka 5, Delo 18. 외무인민 위원 로조프스키의 「조선 독립정부 수립에 대한 초안」(1안), 몰로토프와 차라킨(S. K. Tsarapkin)의 「조선 독립정부 수립에 대한 외무인민위원회 초안」(2안), 12월 18일 말리크(Ya. A. Malik)의 「조선 문제에 대한 소련 대표단의 초안」(3안), 「조선 문제에 대한 소련 대표단의 초안」(4안).

앞둔 12월 18일에도 외무인민위원회는 신탁에 대한 조선 내 불만을 지적하며 미소위원회의 검토 후 4개국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소련 외무인민위원회는 그 대응 방법을 논의하였다. 1945년 6월 외무인민위원회 제2극동부 주코프(Dmitiri Zhukov) 부장, 자브로딘(Evgeni Zabrodin) 차장의 보고서를 보자. 그들은 소련의 신탁 참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13)</sup> 조선의 독립과 소련의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 나아가 여타 강대국의 대소 공격 기지화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련과 조선 간에는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련은 신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견해는 1945년 9월 또 다른 메모에서도 볼 수 있다.<sup>14)</sup> 내용을 요약하면, 미군 점령이 지속되는 한 소련군도 점령을 지속한다. 또한 2년간 점령 후 4개국의 후견제 지역이 되어야 하며, 소련군은 부산과 진해, 제주도, 인천 등을 통제한다. 이러한 통제권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이용하여 주장하며, 미국이 거부시 중국과의 공동 통제를 제안한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 간 국경 확정시 대륙 국가, 특히 대조선 침략 기지였던 대마도를 조선에 교부할 것을 제안한다 등이다.

이 보고서들은 관련 부서의 정책 제안서나 보고서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뒷받침해 준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신탁 조건을 검토하였

13)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서 문서, Fond 0430, Opic' 2, Papka 5, Delo 78. 이외에도 1945년 12월 외무인민위원회 제2 극동지부 고문 페투호프(Petukhov)의 보고서(‘조선의 소미 점령과 북조선 및 남조선 간의 경제적·정치적 유대 문제’), 12월 10일 말리크의 보고서(‘단일 조선 정부의 문제에 대해’), 외무인민위원회 제2 극동지부 고문 수즈달레프(Suzdalev)의 보고서(‘조선에서 일본의 군수 중공업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다.

14)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문서, Fond 0431/1, Opic' 1, Papka 8, Delo 2, 작성자 불명, ‘과거 일본의 석민지 및 위임 통치 지역 문제에 대한 메모’.

고, 신탁안을 조선의 ‘민주화’와 일본(과 미국)의 재위협 방지 등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점이다. 즉, 소련은 신탁 그 자체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조선 문제’를 미국과 함께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그 대응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이 신탁을 수용한 데에는 또 다른 외부 변수, 즉 ‘일본 문제’의 처리도 고려해야 한다. 전후 극동 지역에서 소련의 최우선 관심은 미국의 대일 정책이었으며, 모스크바 회의에서 소련의 최우선 관심도 일본의 처리 문제였다.<sup>15)</sup> 경제 회생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음에도 1945년 소련이 공개적으로 대미 비난과 불만을 제기한 배경에는 미국의 소련 무시,<sup>16)</sup> 그리고 대일 정책이 있었다.<sup>17)</sup> 특히 11월 6일 제28차 혁명 기념일 연설에서 몰로토프는 미국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는데, 일본의 항복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그의 불만 뒤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정책이 깔려 있었다.

모스크바 회의에서 ‘일본 문제’와 관련, 소련의 최소 목적은 미국만의 책임권에 반대하고 일방적 주도를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은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를 제안하였고, 12월 16일 대일이사회의 도

15)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1951*(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108.

16) 한 예로 소련은 미국이 쿠릴 점령의 대가로 기지의 영구 사용권을 요구하였다고 잘못 이해한 바 있다. 소련에게 이는 피정복국이나 약한 동맹국이나 가능한 요구로[William Taubman, *Stalin's American Policy : From Entente to Detente to Cold War*(New York : W. W. Norton, 1982), p. 114] 일본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뿐더러 ‘강대국’ 소련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1945년 10월 25일 스탈린은 해리먼 주 소련 대사에게 맥아더가 소련이 ‘마치 2류 국가이고 동맹이 아닌 것처럼’ 대접하고 있다고 직접 불만을 토로하였다[William A. McNeill,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America, Britain & Russia : Their Cooperation and Conflict, 1941~1946*(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703].

17) David J. Dallin, *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48), pp. 239~241 ;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1951*, p. 110.

쿄 설치와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의 워싱턴 설치가 합의되었다. 달린(David J. Dallin)은 결과적으로 대일이사회가 미국 정책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회의는 사실상 소련의 대일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18)</sup> 그 후 일본이 미국 중심의 ‘반소 진영’의 일원이 된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지적은 일면 옳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대일이사회의 실제 운영보다 소련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본의 점령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였고, 소련이 점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었다. 오히려 소련은 일본 정책에 절대 권한을 가진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소련은 일본과 관련된 최소한도의 목적을 이루자 조선의 신탁인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1945년 소련의 ‘조선 문제’ 인식의 두번째 특징은 조선의 분할을 ‘정치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45년 당시 소련은 조선의 분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소련군의 포고문들을 살펴보자.

1945년 8월 치스차코프(Ivan Mikhailovich Chistiakov)의 포고문을 보면,<sup>19)</sup> 소련군과 연합국이 조선을 공동으로 ‘해방’시켰다고 했을 뿐, 그는 두 외부 세력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련군 보고서나 소련 학자들도 조선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루거나,<sup>20)</sup> 북한을 ‘조선의 소련군 배치 지역’<sup>21)</sup> 또는 ‘조선의 북쪽 지역’<sup>22)</sup> 등 지리적

18) David J. Dallin, *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 p. 268.

19)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 편집부 역음, 『분단자료집 : 1945~1948년 자료 모음』(서울 : 한백사, 1989), 16쪽.

20) TsAMO, Fond 32, Opic' 11318, Delo 196, 『장교들의 조선 편람』.

21) TsAMO, Fond 2, Opic' 687572, Delo 2317, 1945년 9월 19일 제25군 군사평의회 위원 Lebedev 소장, 정치부장 Gromov 대좌가 연해주군관구 사령부 군사평의회 위원

개념으로 표기하였고, 이는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sup>23)</sup> 이러한 지리적 표현은 소련이 계획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소련이 일본군의 패배를 중시하였고, 또 ‘조선 문제’를 국제 협력의 틀 내에서 폐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리적이건 정치적이건 간에 소련은 분할 문제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와다 하루키, 웨더즈비(Kathryn Weathersby), 리(Eric van Ree) 등은 남북 교류에 대한 소련의 소극적 태도를 제시하며 1945년 소련이 이미 분단 정책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4)</sup> 미국은 1945년 9월 8일 맥아더의 연락관 교환 제의 후 9월에 경제 문제 논의를 위해 치스차코프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10월 10일 치스차코프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것이 바로 소련의 분단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에는 당시 10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무인민 위원 로조프스키(S. A. Lozovskiy) 보고서<sup>25)</sup>를 보면,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지령 이후 소련은 10월 중순 구체적으로 정책 수행 기구의 구성을 논

Shtykov 대장, 연해주군판구 정치부장 Kalashnikov 중장에게 보내는 보고서, 「북조선 주민 정세」, p. 1 ; 목록 불명, 1945년 9월 20일자(조선의 소련군 분할 지역 상황에 대한) 「정보통보」(제1국동방면군 정치국 제7호과장 Mekler 중좌 작성), p. 1 ; 목록 불명, 1945년 9월 22일 Kraskevich가 Shikin에게 보내는 보고서, 「조선의 소련군 배치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 p. 1.

- 22) TsAMO, Fond USGASK, Opic' 433847, Delo 1, 「조선 이북의 정치상황과 지방자치기 관의 행정기구」, p. 1 ; L. Zenina, "Bor'ba koreyskogo", p. 1.
- 23) TsAMO, Fond USGASK, Opic' 433847, Delo 1, 북한에서의 사업을 위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리순근 및 최용달과 Romanenko와의 대담 기록, p. 4.
- 24) 와다 하루키, “소련의 대북한 정책 : 1945~1946”,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 전후의 현대사』(서울 : 일월서각, 1982), 263쪽 ;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pp. 125~128 ;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November 1993), p. 8.
- 25) TsAMO-A, Fond 19, Opic' 266, Delo 27, 1945년 10월 17일 문서입수번호 392-1, 외무인민위원 Lozovskiy가 적군 총참모장 Antonov와 총정치국장 Shikin에게 보내는 보고서.

의중이었다. 점령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필요성 제기→연해주군관구 사령관, 군사평의회 위원 및 외무인민위원회 관련인의 공동 제안→외무인민위원회 제2 극동지부와 군 정치국원 간의 논의 후 초안 마련→군 총참모장 및 총정치국장의 재가, 외무인민위원회에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바로 이 와중에 미국의 교류 제안과 치스차코프의 거부가 이어졌다.

치스차코프는 북한의 점령군 사령관이었지만 정치경제적 성격의 남북 교류를 결정할 만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현지 점령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인민위원회와 외무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정치·경제 업무의 담당자와 기구를 논의하는 마당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치스차코프는 미국측 제안에 머뭇거리다 정치 문제 담당자의 부임 후로 미루며 거절했던 것이다.

## 2. 소련의 북한 정세 판단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은 국내 세력을 통한 ‘우호 정부’ 수립으로 요약된다. 소련이 국내 세력의 참여를 주장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소련의 북한 정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줄 것이다.

소련측 주장에 따르면, 모스크바 회의에 제출한 그들의 안은 ‘조선 문제’의 해결 주체를 국내 세력으로 하는 한편, 외부 세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안과는 다르다. 샤브시나도 ‘민주주의’적 정당 및 단체들과의 협의가 ‘모스크바 결정’의 이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sup>26)</sup> 바세츠키(G. Vasetskiy) 또한 ‘모스크바 결정’이 “외국의 간섭 없이 통일된 조선 독립 민주주의 국가 형성의 실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27)</sup>

26) F. I. Shabshina, “Koreya posle”, p. 259.

27) G. Vasetskiy, “Narodno-demokraticeskiy”, p. 1.

소련군 보고서를 종합하면 당시 소련의 북한 정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28)</sup> 소련은 북한에서 '우호 국가'의 수립을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조'를 시도하였다.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철군 후 소련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소련은 인적 요원을 준비하는 한편,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즉 소련은 당시 북한 정세가 소련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통제력, 지지 기반, 주민의 친소 성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통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련의 정책 수행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이다. 지역 경무사령부에 이어, 대민 행정 기구, 고문 등 기구의 구성면에서 소련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45년 특히 대민 행정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현지 점령군의 요구로 기구 구성이 논의된 것이 10월 중순이었고, 동 기구를 관장할 부사령관 로마넨코(Andrei Alekevich Romanenko)의 정식 임명이 12월 초에나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1945년 점령 첫 해는 기구의 구성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월 11일자 갈اكت이오노프(Galaktionov) 기술소좌의 보고서는 부사령관 임명 전 소련군 내에 업무 중복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sup>29)</sup> 그는 군사령부, 젤레즈노프(Zheleznov) 그룹, 로마넨코 그룹 가운데 기업소의 가동, 생산물의 공급 및 판로 문제와 관련 임무를 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리에 따르면, 로마넨코는 군사적 업무를 부사령관 라구틴(P. F. Lagutin) 중장에게 인계하고 대민 업무에 주력하였다.<sup>30)</sup> 대민 업무에는 당연히 산업소 가동 문제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

28)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외무성 문서, Fond 013, Opis' 7, Papka 4, Delo 46, 1945년 12월 25일 적군 총정치국장 Shikin이 외무인민위원 Lozovskiy에게 보내는 보고서, 「북조선 정세보고」; 1945년 12월 27일 Ignat'ev의 보고서.

29) TsAMO, Fond USGASK, Opis' 433847, Delo 1, 1945년 11월 11일 Galaktionov 기술소좌의 보고서, 「1945년 11월 10일 북조선 산업 현황에 대한 조회·보고」, p. 9.

결과 젤레즈노프 그룹과 업무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 분담 문제가 제기되는 마당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한편 북한에서 소련의 지지 기반은 공산당이었다. 당시 이들은 당원이나 지부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는 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2,124명에 불과하던 당원 수가 12월 초에는 총 4,500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1946년 1월 1일에는 6개 도 8개 군에 공산당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31)</sup> 그러나 그 조직력과 통제력에 대한 소련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통일된 중앙 조직의 부재, 적대 요원과 친일 분자에 의한 오염, 당파 투쟁과 규율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2)</sup> 11월 하순에는 민주당 주도로 ‘해방’ 후 최초의 반소, 반공 시위인 신의주 사건이 있었고,<sup>33)</sup> 지주나 부르주아가 당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거나 일부 남한 접경 지역에서 공산당원들이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보고조차 있었다.

더욱이 군 총정치국장 시킨은 1945년 말 보고서에서 공산당이 당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sup>34)</sup> 그가 말한 ‘실수’란 평남 인민위원회에서 공산당의 주장(급진 개혁의 대책과 민족주의자의 배제)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공산당은 전 계층의 협력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통일 전선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30)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p. 93.

31) Doklad(a), p. 71; 「조선 이북의 정치상황과 지방자치기관의 행정기구」, p. 2.

32) 「조선 이북의 정치상황과 지방자치기관의 행정기구」, p. 2 ; TsAMO, Fond USGASK, Opic' 102038, Delo 2, 1945년 12월 30일 문서입수번호 020, Ignat'ev의 보고서, 「도금사령부 대표 및 사령관으로부터의 보고 자료에 대한 보고」, pp. 1~3.

33) 와다 하루카, “소련의 대북한 정책”, 276~283쪽 ;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서울 : 중앙일보사, 1994), 163~170쪽.

34) 1945년 12월 25일 Shikin의 보고서, p. 3.

그렇다고 주민들이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다. 일부 보고서는 ‘우호성’을 주장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 대부분이 소련에 ‘호의적’이라는 시킨의 보고나, 해방 당시 소련군이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는 「민정부 보고서」의 언급이 그 예이다.<sup>35)</sup> ‘해방’ 직후 북한 주민들이 소련군에 호의적이었으리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테러나 창고 파괴 등 적 대 행위의 대상이 주로 소련군과 공산당에 집중되었다는 보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주민들은 소련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해도, 평북, 함북 등지에서 소련군이나 공산당원 살해를 목적으로 테러 집단이 조직되었다는 이그나치예프(Aleksandr Matvevich Ignat'ev)의 보고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본다면 1945년 말 북한 정세는 통제력, 지지 기반, 주민의 친소 성향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북한의 ‘개혁’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민 행정 기구의 구성은 중앙 통제력의 발판을 의미하였고, 북한에서 정치적 실세는 공산당이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예정된 ‘개혁’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이 북한을 기반으로 향후 조선에서 ‘민주’ 정부의 수립 가능성 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45년 12월 25일 시킨의 보고서를 보자.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는 반 년 후면 북한에서 ‘우호적’인 조선인 간부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에서 소련의 ‘정치적 입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 요원이 필요한 데 그 준비에 약 4~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한 ‘민주’ 요원의 수나 어떠한 근거로 4~5개월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35) Doklad(a), p. 4 ; TsAMO, Fond ?, Opis' 687572, Delo 2317, 1945년 9월 19일 제25군 군사평의회 위원 Lebedev 소장, 정치부장 Gromov 대좌가 연해주군관구 사령부 군사평의회 위원 Shtykov 대장과 연해주군관구 정치부장 Kalashnikov 중장에게 보고서, 「북조선 주민정체」, p. 1.

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보고서는 ‘모스크바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은 모스크바 회의 당시 소련군의 인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련군 관계자들은 ‘우호적’인 북한,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조선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이 임정 수립 과정에 국내 세력의 참여를 주장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소련측 예상대로라면 1946년 4~5월경에는 북한의 여러 단체 및 정당에 ‘우호적’ 간부진을 포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미소공위 개최시 소련은 북한 국내 세력의 ‘우호성’을 자신할 수 있다. 더욱이 남한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세력들이 ‘조선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미래 조선이 ‘민주’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련안에 반영시켰던 것이다. 실제 모스크바 회의 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집행위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임정의 2 대 1 원칙은 북한 및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 3분의 2, 남한의 여타세력 3분의 1을 상정했던 것이다.<sup>36)</sup>

### 3. 1차 공위 후 소련의 부정적 태도

공위 과정에서 소련의 일관된 목적은 ‘우호 정부’의 수립이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소련이 공위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소련 대표단은 1차 공위부터 결렬을 전제로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예비 회담부터 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다.<sup>37)</sup>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련 측 대표단장 슈티코프(Terentiy Formich Shtykov)의 당시 일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소련군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36)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 191~192쪽.

37) 자세한 내용은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Ch. 13을 참조할 것.

소련이 결렬을 전제로 공위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슈티코프는 소련의 대북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로, 그가 모르는 가운데 미소공위의 과행이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기를 보면,<sup>38)</sup> 그는 1946년 9월 26일 로마넨코에게 공위 재개 준비를 지시하였고, 2차 공위 중 공위의 지속과 결렬 과정에 대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1차 공위 결렬 후로, 소련이 처음부터 공위를 제스처로 생각하였다 면 슈티코프의 고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소련이 반탁과 관련하여 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탁과 관련하여 소련은 반탁 운동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이러한 ‘잘못된’ 움직임을 뚭인할뿐더러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련군 보고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이 ‘후견제’와 ‘위임 통치’를 동일시하는 ‘오해’를 낳은 것은 남한측이 ‘후견제’를 부정확하게 번역한 결과라면서 미국측 책임을 제기했던 것이다.<sup>39)</sup>

그럼에도 소련의 대미 비난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반탁의 배후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반동 세력으로 미국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었으며, 1946년 1월 29일 북한의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의 공동 성명은 오히려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2차 공위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1947년 1월 22일 슈티코프는 레베데프(Nikolai Georgievich Lebedev)에게 스탈린의 명령서를 전달하며, 북한 지도부에게 반미 발언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sup>40)</sup> 또한 8월 18일 몰로토프가 미국의 좌익 탄압에 대한

38) Shykov의 일기, 1946년 9월 26일, 1947년 7월 30일, 8월 2일, 15일, 29일.

39) TsAMO, Fond USGASK, Opic' 102038, Delo 2, 1946년 1월 4일 Gromov, Ignat'ev가 연해주군관구 정치국장 Kalashni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p. 2.

40) Shykov의 일기, 1947년 1월 22일.

항의를 지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한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 “미국 정부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지시한 것이다.<sup>41)</sup> 여기에는 서구로부터의 경제 협력이나 좌익 세력에 대한 미국측의 탄압 저지 측면도 작용하였지만, 이와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소련이 ‘조선 문제’의 협상 파트너인 미국에 대해 공개적인 반미를 꺼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위의 파행을 전제로 했다면 이러한 소련의 소극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소련 대표단과 소련군이 공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것은 1차 공위를 거치면서였다. 1차 공위 과정에서 임정 참여 단체를 논의하며 비로소 미국과의 협력한 입장 차이를 깨달았고, 그 결과 공위에서 ‘조선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련군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상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명령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련 대표단은 슈티코프를 중심으로 회담 내용과 향후 계획안을 함께 소련공산당 중앙에 보고하였고, 당과 외무성은 그 범위 내에서 지시를 내렸다. 한 예로, 1947년 7월 14일 슈티코프의 제안에 대해 외무성의 말리크(A. Ya. Malik)는 7월 21일자 전보를 통해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 루트는 대표단 및 점령군의 입장이 상부에 전달되었고 상부의 최종적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첫째, 1946년 6월 12일 슈티코프가 스탈린과 몽로토프에게 보낸 제1차 공위 결과 보고서를 보자.<sup>42)</sup> 그는 공위에서 양국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음을 지적하며,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 소련과 ‘다른’ 태도를 취하며 임정에 반탁 우익 세력의 제외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소련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슈티코프는 1차 공위에서 양국간의 차이를 인식하였고, 이것이 서로

41) 위의 일기, 1947년 8월 29일.

42) 국방성 문서, 1946년 6월 12일 Shtykov가 Stalin과 Molotov에게 보내는 보고서, 「1946년 3월 20일~5월 6일 서울 소미공위 관련 보고」.

다른 성격의 조선 정부를 상정하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이다. 현지의 소련군 내부에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1946년 9월 11일 소련군 정치부서 책임자 회의에서 카르피체프(Karpychev)는 (중국,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소련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던 것이다.<sup>43)</sup>

둘째, 소련이 양보할 수 없다면 공위에서의 타협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나 이에 대해 소련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우선 소련은 미국의 공위 재개 제안에 부정적이었다. 몰로토프와 하지의 공위 재개 서신(1946년 6월 15일, 8월 12일)에 대해 타스(TASS) 통신은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였고,<sup>44)</sup> 더욱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보국은 1946년 9월 1일자 「통보」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노골적으로 지적하였다.<sup>45)</sup> 미국의 대조선 정책은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조선을 동방의 침략 기지이자 반소 교두보로 이용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값싼 원료의 수입 및 시장 관로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차 공위에 즈음하여 작성된 소련군 보고서도 미국이 2차 공위에서 소련측 요구(반탁 우익 세력의 제외)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었다. 1947년 5월 14일, 16일 레베데프는 보고서에서 남한 정보 요원의 보고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sup>46)</sup> 2차 공위에서 미국은 임정에 보다

43) Shtykov의 일기, 1946년 9월 11일.

44) TASS, Izvestiya, no. 257(9173), 31 Oktyabr' 1946, Vneshnyaya politika sovetskogo soyuza 1946 god, Gosudarstvennoe izdatel'stvo politicheskoy literatury, p. 813 ; TASS, Izvestiya, no. 296(9212), 9 Dekabr', 1946, Vneshnyaya politika sovetskogo soyuza 1946 god, p. 817.

45) TsAMO Fond 17, Opis' 128, Delo 205, 1946년 9월 1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보국 통보 No. 16(40), 「극동에서의 미국 정책」, p. 19.

46) TsAMO, Fond 142, Opis' 540934, Delo 4, 1947년 5월 14일 Lebedev가 Meretskov와 Shty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군정활동과 관련하여 남쪽의 우리 벗들에게서 받은 정보」, p. 3 ; TsAMO, Fond 142, Opis' 540934, Delo 4, 1947년 5월 16일 Lebedev의 보고서, 「우리 벗들의 정보에 의거 소미공위 재개에 대한 남조선 각 정치그룹의 태도」, p. 2.

많은 우파를 참여시킬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재차 공위를 중지시키고 남한에서 독자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지 소련군은 미국의 좌익 세력 '탄압'으로 2 대 1의 임정 원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슈티코프 등은 1차 공위 중 이미 미국의 남한 정책을 '반동' 정책으로 언급하였으나, 소련이 미국의 대남 정책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차 공위 결렬 후였다. 미군 당국의 탄압 정책으로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이 파괴되었고, 여운형의 사회노동당 창당 등 좌익 세력의 합당이 자연되었으며, 남조선로동당은 불법화되었다는 것이다.<sup>47)</sup>

사실 남한 좌익 세력의 약화는 좌익 세력의 불화, 박현영의 「신전술에 대한 지시」, 여운형과 박현영의 갈등 등 전술의 실패와 노선의 차이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46년 이후 남한의 좌익 세력이 실제 약화되었고, 또 소련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소련은 좌익 세력의 복원을 위해 시위와 항의 집회 지시,<sup>48)</sup> 시위 자금 지원<sup>49)</sup>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2차 공위에 앞서 소련군 보고서들은 남조선로동당의 비관주의적 태도와 민전 대표, 전 인민당원, 사회노동당원, 남조선로동당 기회주의자들의 동요, 그리고 이들과 미군정과의 타협 가능성 등을 보고하였다.<sup>50)</sup> 이는 임정의 2 대 1 원칙이나 공위를 통한 '우호적' 정

47) TsAMO, Fond 142, Opic' 540934, Delo 4, 1947년 5월 4일 Lebedev가 Shty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1947년 4월 19일 남조선 정세자료 보고서」(이승엽 작성), p. 1 ; TsAMO, Fond 17, Opic' 218, Delo 205, 1946년 7월 1일 총정치국 제7호과 부국장 Sapozhnikov 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Suslov에게 보내는 1946년 6월 27일 연해주군관구의 '조선 및 요동반도의 정치정세 보고' 보고서, p. 1.

48) Shtykov의 일기, 1946년 9월 16일 ; TsAMO, Fond USGASK, Opic' 102038, Delo 2, 1946년 9월 23일 Ignat'ev가 제25군 군사평의회에 보내는 보고서 ; 1946년 10월 5일 Romanenko가 Shty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남조선 미군정의 반동정책에 항의하는 북조선 인민들의 집회 결과에 대해」.

49)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문서, 1946년 3월 28일 Shikin[이] Bulganin에게 보내는 박현영 서한 관련 요청서 ; Shtykov의 일기, 1946년 10월 1~3일, 12월 6~7일.

부 수립이 이제 불가능하며, 소련이 더 이상 공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2차 공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 역시 소련군의 부정적 입장 을 뒷받침한다.<sup>51)</sup> 특히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에게 북한 주민들은 ‘악 의를 표명’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소련이 주민들의 집회를 철저 히 통제<sup>52)</sup>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지 소련군들이 협상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태도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보고서를 볼 수 있다. 40SD 부대장 에르몰라예프 (Ermolaev)와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조토프(Zotov)의 보고서를 보자.<sup>53)</sup> 에르몰라예프는 제25군 군사평의회에 1946년 7월 22일자 제25군 지령서 (No. Ulk/4/01023)를 근거로 어느 소좌 아내의 북한 입국 증명서 교부를 청 원하였고, 9월 24일 조토프는 레베데프에게 북한 주둔 소련군의 가족 거주 는 아내와 아이로 제한하는 결정을 상기시키며 한 장교 어머니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아쉽게도 1946년 7월 22일 지령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나, 보고 내용으로 보건대 가족의 입국 허가서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소련은 1차 공위 후 ‘조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장기 주둔에 대비하였으

50) TsAMO, Fond 142, Opic' 540934, Delo 4, 1947년 5월 8일 Korotkov와 Lebedev가 Meretskov과 Shty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p. 3, 7.

51) TsAMO, Fond 379, Opic' 578927, Delo 3, 1947년 5월 15일 Ignat'ev의 보고서, 「Molotov 와 미국 무장관 Marshall의 조선문제 서환교환 보도에 대한 반향」, pp. 1~5 ; TsAMO, Fond 142, Opic' 540934, Delo 4, 1947년 5월 29일 Sharin이 Meretskov에게 보내는 보고서, 「소미공위 재개에 대한 각계 각종의 반응에 대한 보고」, p. 2 ; TsAMO, Fond 379, Opic' 578927, Delo 3, 1947년 7월 10일 제25군 정치부장 Gromov의 보고서, 「미국 대표 단의 평양 방문과 관련한 북한주민의 동향 보고」 ; 1947년 8월 8일 Marmorshteyn의 보고서, p. 5.

52) Shtykov의 일기, 1946년 11월 4일.

53) TsAMO, Fond 379, Opic' 532092C, Delo 2, 1946년 8월 28일 40SD 부대장 Ermolaev 대좌가 제25군 군사평의회에 요청한 서신 ; 1946년 9월 24일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서기 Zotov중좌가 제25군 군사평의원 Lebedev에게 보내는 서신.

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4. 공위 결렬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 : 친소 국가의 수립

이제 살펴볼 부분은 공위의 완전 결렬과 철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소련은 북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북한에서 소련의 일관된 목적은 ‘우호 정부’의 수립이었으며, 이는 공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차 공위에서 소련측 대표인 슈티코프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 조선이 소련에 ‘우호적’이고 장래에 소련에 대한 공격 기지가 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54)</sup> 소련군 내부 보고서는 보다 직접적이다. 1946년 6월 12일 슈티코프는 스탈린과 몰로토프에게 보내는 1차 공위 결과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 협상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 정부가 ‘반동’ 문자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미국인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한편, “조선에서 우리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sup>55)</sup>

여기서 ‘우호 정부’는 두 가지 성격, 한편으로는 소련의 안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우호 정부’는 대외적 ‘우호성’인 친소 국가, 그리고 대내적 ‘민주성’인 사회주의 체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1945년 말 군 총정치국장 시킨은 조선에서 소련의 ‘정치적 입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철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sup>56)</sup> 민정부사령관 레베데프는 철군을 앞둔

54) *Vneshnaya Politika Sovetskogo Suyuza 1946 god*(Moskva : Gosudarstvennoe Izdatel'stvo Politicheskoy Literatury, 1952), p. 808.

55) 1946년 6월 12일 Shtykov의 보고서.

1948년 8월 말 북한에 “인재가 양성”되었고 “평화, 질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sup>57)</sup> 더욱이 1947년 철군 제의는 북한이 아니라 소련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7년 9월 26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철군 제의 전 소련이 북한과 논의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1948년 9월 북한의 공식적 요구 뒤에는 소련군이 있었다. 레베데프와 슈티코프의 일기를 보면, 점령군 상부에서는 이미 1948년 5월 철군 후를 대비하여 논의가 있었고 슈티코프와 레베데프의 검토를 거쳐 북한이 철군을 요구하였던 것이다.<sup>58)</sup>

이를 고려한다면, 공위 결렬 및 철군의 배경은 바로 북한 체제에 대한 소련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질서가 수립되었고, 북한의 ‘민주화’를 발판으로 조선에서 소련의 입장이 보장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우호성’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철군은 ‘조선 문제’ 해결의 수순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군 당시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현지 소련군과 소련 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민주’ 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주장하는가 하면,<sup>59)</sup>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1948년 북한에서는 여전히 “건설 업무가 진행 중”임을 밝

56) 1945년 12월 25일 Shikin의 보고서, p. 9.

57) Lebedev의 일기, 1948년 8월 27일.

58) 1948년 레베데프는 철수를 공표하고 이를 소련 정책을 선전하는 데 이용할 것인가(5월 13일), 북한에 체류중인 조선계 소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5월 25일)를 고려하였으며, 8월에는 대사관의 구성을 논의하였다(8월 17일, 30일). 슈티코프도 8월에 북한의 당면 문제 중 하나로 소련과 미국 정부에 대한 군 철수 제기를 거론하였고(8월 27일), 9월 3일 철군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북한의 철군 요청 한달 후 본국과 정부 송인 문제를 논의하였다(10월 2일). Lebedev의 일기, 1948년 5월 13일, 25일, 8월 17일, 30일 ; Shtykov의 일기, 1948년 8월 28일, 9월 3일.

59) Doklad(a), p. 20 ; V. P. Nikhamin, *Bor'ba SSSR za demokraticeskoe reshenie voprosov poslevoennogo ustroystva mira na dal'nem vostoke(1945~1949gg)*(전후 극동의 평화수립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소련의 투쟁 1945~1949)(Moskva : Bybshaya politinaya shkola pri TsK KPSS, 1955), pp. 6~7.

힌 바 있다.<sup>60)</sup> 전자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밀하는 반면, 후자는 아직 북한이 경제적 ‘민주화’ 과정에 있다는 등 이중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또한 소련 학자들의 문헌과 소련군 보고서들도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소련 학자들이 ‘민주화’의 예로 든 것은 정치 부문에서 인민위원회의 성립, 경제 부문에서 토지 사유화 폐지, 국유화 등이었다.<sup>61)</sup> 이와 달리 「민정부 보고서」는 ‘민주’ 개혁의 결과를 제시하며 정치 부문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을 제시한 반면,<sup>62)</sup> 경제 부문에서는 1946년의 복구 활동과 1947~1948년 부문별 산업 개편 과정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sup>63)</sup>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나 표현들은 결국 소련이 경제 부문의 ‘민주화’를 자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경제 부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 경제였다. 1945년 10월 4일 「개인 기업의 창의력 발휘에 의한 결정서」는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사적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식 문서였으며, 1946년 3월 23일 「20개 정강」,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안」 모두 사적 요소를 인정하였다.<sup>64)</sup> 예를 들어, 북한에서 상업 부문(상점, 음식점, 서비스업 등)은 국영 상업, 협동조합, 사영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영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1946년 91.46%, 1947년 66.32%)이기는 하나 1948년 전 상

60) Doklad(a), p. 3.

61) E. Pigulevskaya, “Koreskiy narod”, pp. 3~6 ; M. Shver, “Koreskiy narod v bor’be za nezavisimost’ i demokratiyu(조선인민의 독립민주투쟁)”, pp. 4~5.

62) Doklad(a), pp. 20~22.

63) Doklad(b), p. 13.

64) 서남원,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 독재경제의 이론과 실제』,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5(서울 :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50~51쪽 ;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제2권,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7(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1장.

업 부문에서 약 5분의 3(61.82%)을 차지하였고, 소련 역시 「민정부 보고서」에서 사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sup>65)</sup>

또한 북한 사회의 ‘개혁’에 중간 부르주아들이 참여하였다.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언급했을 때, 노동 계급과 여타 계급과의 모든 협조마저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징은 하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존재하고, 다른 계급 및 다른 당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sup>66)</sup> 1946년 8월 말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북조선로동당은 독점적 위치에 있었으며, 소련은 이를 노동자를 ‘개혁’의 선봉 계급으로 주장하였다.<sup>67)</sup> 북한의 주요 사회 세력이 노동 계급(과 농민들)임에는 틀림없으나, ‘개혁’ 세력은 노동자, 농민 외에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일부 부르주아, 지식인들이었다.<sup>68)</sup>

사적 소유제가 존재하고 중간 부르주아가 ‘개혁’에 참여하였다면, 1948년 북한 체제는 스탈린이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보기 어렵다. 소련은 1948년 당시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소비에트 질서’를 수립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민정부 보고서」는 ‘민주화’의 성공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개혁이 진행중임을 밝혔고, 소련 학자들도 점령 기간 중 북한의 체제를 규정하는 대신 그 기간을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기간’으로 제시하고 개혁 과정의 설명에 주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철군을 가능하게 한 북한 체제의 성격은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이 아니라기보다는 ‘우호 정부’의 대외적 측면인 친소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

65) Doklad(b), pp. 159~173.

66) Voprosy Leninizma, pp. 114~115, G. Vasetskiy, “Narodno-demokraticheskiy”, p. 6에서 재인용.

67) F. I. Shabshina, “Koreya posle”, pp. 282~284 ; G. Vasetskiy, “Narodno-demokraticheskiy”, p. 3.

68)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p. 159.

하다. 무엇보다 북한 정부는 친소적이었다. 최고인민위원회 및 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슈티코프는 1948년 8월 30일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논의하는 한편, 빌라사노프에게 외무성의 각료 구성을 직접 지시하였고, 김일성의 정부 성명서 초안도 슈티코프와 레베데프의 검토 후 발표되었다.<sup>69)</sup> 또한 소련은 민족간부학교 등을 직접 운영하여 국가 및 당의 책임자, 사회 단체의 책임자, 선전선동원, 교원 등 전 부문의 지도급 인사들을 교육시켰다.<sup>70)</sup> 북한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가’로서는 미흡할지라도 친소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친소 정부, 친소 지도층의 형성은 철군 후에도 북한의 경제 개혁이 예정대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련의 점령 기간 중 이룩한 정치 부문의 ‘민주화’는 이제 경제 부문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련은 북한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당시 소련이 친소 국가 북한에 만족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의 변화, 즉 대미 관계의 악화, 그리고 당시 조선과 일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대립 관계로 들어섰다. 공위에서 소련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1947년 7월 22일 이후 양국 관계는 3개국(소련, 영국, 프랑스) 외상회의(1947년 6월 27일~7월 2일)가 결렬되고 파리 유럽부흥회의(7월 12~15일)에서 마셜 플랜의 실현이 기정 사실화되는 등 악화 일로를 걸었던 것이다.<sup>71)</sup> 마셜 플랜의 실현은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 상실, 나아가 소련에 대한 안보 위협을 의미하였다. 안보

69) Shtykov의 일기, 1948년 9월 2일, 4일 ; Lebedev의 일기, 1948년 8월 8일, 30일.

70) 이에 대해서는 필자, “소련의 북한점령정책 : 정책수행기구와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변화전망』, 1999년 4월 2일 세계지역연구협의회 춘계 학술회 의(1999)를 참조할 것.

71) 1947년 7월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으로 불리는 양자무역협정(1949년 1월 코메콘 <COMECON>)이 이루어졌고, 8월 말 미 국무성은 전세계가 양세계로의 분단에 직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0월 4일 유엔에서 마셜 플랜 원칙이 승인되었고, 소련은 10월 5일 코민포름 창설을 공표하였으며, 10월 6일 유엔의 발간 감시안을 거부하였다.

가 위협받는 한, 소련이 여타 문제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북한과 남한은 각각 정부를 구성하고 대치 양상을 띠고 있었다. 1948년 남한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소련이 임시 정부의 참여를 저지하려 했던 ‘반동 분자’의 핵심 인물로, 남한은 ‘반동화’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전후 소련이 주력했던 ‘우호적’ 일본의 수립도 실패로 돌아갔다. 소련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는 북한 거주 일본인 주민 및 군속에 대한 선전 선동 사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72)</sup> 1945년 12월 24일 메레츠코프의 명령 제00394호에 따라 1946년 1월 24일 이들을 통제할 상설 ‘일본난민위원회’(위원장 로마넨코)와 도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25군 제7호과는 연해주군관구의 명령에 따라 송환 준비 기간(~1946년 10월)과 송환 기간(~1947년 3월)에 각기 선전 선동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송환자에 대한 선전 선동은 1946년 12월 13일 소련 국방성 총정치국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될 정도였다.

그러나 전후 소련은 일본의 점령 정책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달린에 따르면, 1947년 7월 11일 소련 정부는 평화 조약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거부권을 갖는 평화 조약 협상에 반대하고 극동위원회에서 조약 초안을 준비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극동위원회에서 소련의 권한은 미미할 뿐이며, 당시 일본은 소련에 ‘비우호적’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계획에 대응하여 7월 23일(11월 27일 재차) 4개국 외상회의를 제안하였으나 7월 29일 미국의 반대에

72) TsAMO, Fond 25A, Opic' 532092, Delo 1, 1946년 1월 15일 제25군 군사평의회의 북조선 거주 일본 주민의 상황 조건 및 물자 개선에 대한 결정 제01호 ; 1946년 7월 14일 제25군 군사평의회의 일본 난민의 급식 보장 문제에 대한 결정 제015호 ; TsAMO, Fond 379, Opic' 578927, Delo 3, 1947년 1월 27일 제25군 제7호과장 Kovyshenko 소좌의 보고서, 「1947년 1월 15일 현재 일본인 주민 및 군속 현황 보고」 ; 1947년 4월 24일 제25군 제7호과장 보좌관 Kornilov 소좌의 보고서, 「북조선 거주 일본 민간인 및 포로에 대한 사업 보고」.

부딪혔고, 1947년 말 평화 조약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논의는 완전 결렬되었다. 이제 일본의 반소화를 막는 동시에 극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던 소련의 목적은 완전 실패로 돌아갔음이 명백해졌다.

이는 일본이 다시 소련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극동 지역에서 소련의 전통적 위협 세력인 일본이 미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간 이상, 소련은 ‘조선 문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없으며 타협 가능성성이 적은 공위를 지속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남한의 ‘반동화’와 일본의 미국 영향력 편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했고, 그 대안이 바로 북한이었던 것이다.

주코프는 북한의 ‘민주화’와 남한의 ‘반동화’로 조선에서 소련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도 소련은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한 미국과 맞서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73)</sup>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북한과 남한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보다 증대되었고, 소련은 친소 국가의 성격을 대외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소련이 공위의 완전 결렬과 연이은 철군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대미 관계 및 일본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머뭇거릴 여지가 사라졌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에 대응할 수 있는 친소 국가 북한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철군을 주도하고 점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일본의 대안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한 한편, 북한이 친소 정부와 친소적 지도 인사들을 기반으로 향후 ‘민주화’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73) E. M. Zhukov, *Sovietskiy Soyuz v Bor'be za Demokraticeskoe Reshenie Poslevoennykh Problem Dal'nego Vostoaka*, pp. 4~5, 20.

### III. 맷음말

지금까지 북한 점령기에 소련의 인식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1945년 점령 첫 해 소련은 ‘조선 문제’보다는 일본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1945년 모스크바 회의 후 소련은 비로소 ‘조선 문제’를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셋째, 공위 결렬과 철군은 대미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에의 개입 여지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였고, 친소 국가 북한만으로도 소련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가능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1948년 소련이 친소 국가 북한에 만족하였다는 것이 곧 북한 만의 공산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분단의 현실성을 인정한 것이지 분단의 영구화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우선, 소련은 공위의 교착 상태에서도 남한의 ‘반동화’를 심각히 우려하였다. 1947년 8월 2일 슈티코프의 일기를 보면, 그는 공위 지속과 분과위원회 업무를 남한 상황과 연계시켜 고려하였다.<sup>74)</sup> 공위의 지속은 남한 내의 좌의 세력을 강화시키지만, 공위가 결렬되면 이를 세력이 악화되고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며, 분과위원회 업무는 “소련 대표단이 더 오래 남아있으므로 우리 친구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48년 8월 말 슈티코프는 레베데프와 함께 남한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행

74) Shtykov의 일기, 1947년 7월 30일, 8월 2일. 특히 공위 중단의 파장으로 다음을 고려하였다. ① 반탁투쟁위원회 소속 정당 및 단체가 특히 선언서 서명 이후 모스크바 결정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적다. ② 24개 정당 때문에 결렬시킨다면 인기를 잃을 것이다. 작년에도 이 문제로 공위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③ 우리 우방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이고,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태러가 거세질 것이며 그들은 악화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작업 동안 아주 커지고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④ 반동 세력은 그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위 중단을 이용할 것이다. ⑤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을 조정할 합법적인 특수 기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75)</sup> 즉, 소련은 남한의 ‘반동화’를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위 지속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또한 「민정부 보고서」에서 소련은 철군 후 조선의 ‘해방’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sup>76)</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점령 정책을 통해 ‘조선 문제’의 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아직 조선의 통일 및 독립 과제는 수행되지 않았다. 조선의 ‘민주’ 세력은 “평화 애호적·민주적” 조선 정부 수립에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과 결의를 갖고 있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원조에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과 북한은 선린 관계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은 향후 북한을 기반으로 남한의 좌익 세력에게 “우호적·형제적 원조”<sup>77)</sup>를 취하는 등 ‘해방’ 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당시 소련은 남한의 공산화를 적극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1948년에는 국제 환경에 부응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에 대항할 수 있는 친소 국가에 만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한의 ‘민주화’를 추구할 여지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소련의 부정적인 판단은 1949년 9월 14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sup>78)</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슈티코프는 북한의 남침 의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북한군 수와 물자의 부족, 국제 정세의 복잡함이 그것이다. 남침은 “소련에 대항하는 반동적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제 정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군이 이

75) 위의 일기, 1948년 8월 28일.

76) Doklad(a), pp. 24~34.

77) TsAMO, Fond 127, Opis' 468007, Delo 4, 1948년 11월 2일 연해주군관구 정치국 제7호과장 Marmoshteyn이 국동군 정치국 제7호과장 Gaydar 중좌에게 보내는 「조선신문」 비평 보고서(연해주군관구 정치국 제7호과 선임 검열관 Khroshavtsev 작성), p. 8.

78) 1949년 9월 15일, Shtykov가 Stalin에게 보내는 보고서.

에 “개입하여 남쪽에 적극적인 원조를 표명”할 것이기 때문에 남침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국방성 문서

TsAMO, Fond USGASK, Opic' 102038, Delo 2.

TsAMO, Fond USGASK, Opic' 433847, Delo 1.

TsAMO, Fond 17, Opic' 218, Delo 205.

TsAMO, Fond 25A, Opic' 532092, Delo 1.

TsAMO, Fond 32, Opic' 11318, Delo 196.

TsAMO, Fond 127, Opic' 468007, Delo 4.

TsAMO, Fond 142, Opic' 540934, Delo 4.

TsAMO, Fond 379, Opic' 532092C, Delo 2.

TsAMO, Fond 379, Opic' 578927, Delo 3.

TsAMO, Fond ? Opic' 687572, Delo 2317.

TsAMO-A, Fond 19, Opic' 266, Delo 27.

Doklad ob itogakh raboty Upravleniya Sovetskoy Grazhdanskoy Administratii v Severnoi Koree za tri goda (avgust 1945 ~ noyab' 1948), Tom 1, 2, Phkenv'yan, 1948.

-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문서

Fond 0430, Opic' 2, Papka 5, Delo 18.

Fond 0430, Opic' 2, Papka 5, Delo 78.

Fond 0431/1, Opic' 1, Papka 8, Delo 2.

• 외무성 문서

Fond 013, Opic' 7, Papka 4, Delo 46.

• 일기

Shtykov의 일기(1946년 9월~1947년 2월, 1947년 7~10월, 1948년 7~9월).

Lebedev의 일기(1948년 3~5월, 7~9월).

#### <2차 자료>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ya Nauk SSSR ed., *Osvobozhdenie Koree-vospomnaniya i stat'i*(Moskva : Izdatel'stvo Nauka, 1976).

Kraynov, P., *Bor'ba koreyskogo naroda za nezavisimost'*(Moskva : OGIZ, 1948).

-----, *Bor'ba za edinyyu demokraticeskuyu koreyu*(Moskva : Izdatel'stvo Pravda, 1948).

Vneshnaya Politika Sovetskogo Soyuza, 1946, 1947, 1948 rok(Moskva : Gosudarstvennoe Izdatel'stvo Politicheskoy Literatury, 1952).

Zhukov, E. M. ed., *Krizis Kolonial'oy Sistemy*(Moskva : Tokhookeanskiy Institut, Akademiya Nauk SSSR, Moskva, 1949).

-----, *Sovietskiy Soyuz v Bor'be za Demokraticeskoe Reshenie Poslevoennykh Problem Dal'nego Vostoaka*(Moskva, 1950).

Bayanov, B. "Koreya", *Moskovskiy propagandist*, no. 7(Iyul' 1950).

Pigulevskaya, E. "Koreyskiy narod v bor'be za nezavisimost'i demokratiyu", *Vopros' Ekonomiki*, no. 6(Iyun' 1950).

Shver, M. "Koreskiy narod v bor'be za nezavisimost' i demokratiyu".

Vasetskiy, G. "Narodno-demokraticeskiy stroy v Severnoy Koree".

Zenina, L. "Bor'ba koreyskogo naroda za demokraticheskoe edinstvo i natsional'nyu nezavisimost'", *Propaganda i Agitatsiya*, no. 13(Iyul' 1950).

**(Abstract)**

## **Changes in Soviet Perceptions of North Korea between 1945 and 1948**

**Jung Sung Im(Ewha Womans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Soviet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 between 1945 and 1948. In the first year of occupation policy, the Soviet Union regarded 'The Korean issue' as a problem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with the West. The Moscow Agreement ha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Soviet Union to view the division of Korea on political terms. When the Soviet Union rejected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October 1945, it was not because of its closed door policies, but the shortage of preparatory measures, especially the process of forming occupation organizations. I. M. Chistiakov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lthough decisions had yet to be made concerning the occupation body and who should take charge of the post in mid-October, 1945. This was why Chistiakov had rejected the

U. S. proposal for exchange and postponed the issue until a suitable candidate could be found.

The Soviet Union took the initiative in transforming North Korea into a socialist regime. Externally, the Soviet Union blocked American policy in North Korea with the help of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We now know that the Joint Commission disintegrated due to the Soviet Union own desires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North Korea.

However, it would not be true to say that the Soviet Union had not been cooperative in negotiations in the first talks. Judging from Soviet Military reports and the diaries of T. F. Shtykov, the Soviet representative of the Joint Commission, the Soviet Union seems to realize after the first talks that its position differed greatly from that of the U. S.. On June 12, 1946, after the break down of the first talks, Shtykov asserted that both sides had merely clearly stated their positions on the matter and drew bleak prospects for the future possibility of any successful deal. Later, during the second Talks, N. G. Lebedev, chief of the SCA, dismissed any chance of the U. S. making any concessions to the Soviet Union. Furthermore, the leftist powers in South Korea had lost their influence, causing problems in plans to form a 2 : 1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temporary government.

When the Soviet Union had indeed withdrawn from North Korea, the political agenda had completed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by forming both a pro-Soviet government and leadership. However, the economic field was still under reform. The reason why the Soviet Union withdrew its troops and chose favorable view of the occupation policy was because it had brought North Korea into its fold, while turning it against the U. S.,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 was moving smoothly on its way to

socialism, confident it would in near future carry out its promise to adopt socialistic rules in economic matters.

Key Words :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Soviet Perceptions of North Korea, Socialism